

“체육시설관리 부서 업무 태만” 질타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 “삼천체육소공원 설치된 이후 관리부서 없이 지금까지 방치해 온 것”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이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부서의 업무 태만을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김현덕 의원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삼천 1·2)은 1일 1일 제3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주시 공무원들의 고질적 병폐인 업무 미투기와 월드컵 경기장 대부분 체납 문제 등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삼천체육공원의 관리 실태를 해당 구청 공원관리 담당부서 문의한 결과 “해당 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상의 공원이 아니므로 공원관리 부서 소관이 아니고,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 시설 관리는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체육진흥과 소관이라는 답변을 듣고 체육진흥과에 다시 문의한 결과, 삼천체육소공원의 경우 축구장 우레탄 포장 사업 완료 후 시설물을 구청 생태도시과에 인계해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으로 서로 책임을 미루고 문제 해결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가 설치한 삼천체육소공원의 경우 설치된 뒤로 관리부서 없이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해 온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따르면 전주시에는 현재 관리주체가 없는 소공원, 일명 쌈지공원들이 덕진구 27개소, 완산구 47개소 총 74개소가 있다.

이같은 소공원의 경우 조성 사유는 주민참여사업, 푸른도시가꾸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수도공사 시 조성 등 각양각색인데, 이렇다 보니 조성 주체 또한 문화경제과, 건축과, 마을가꾸기협의체, 등 여러 곳으로 나눠져 관리도 부실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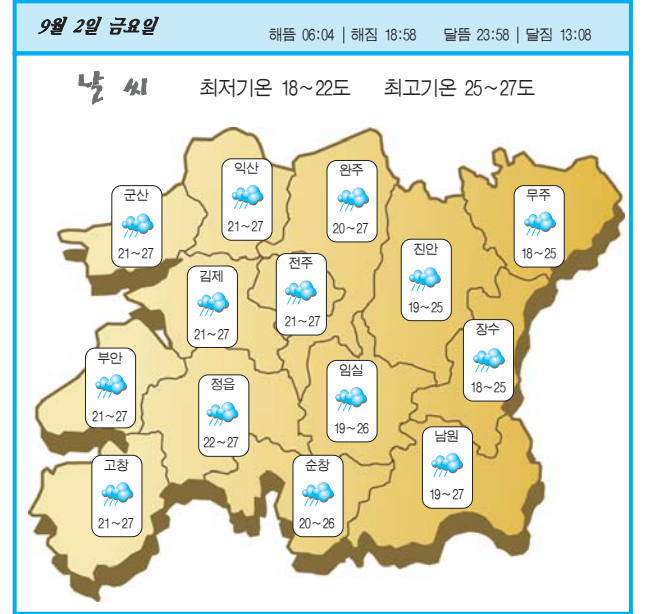
김 의원은 “체육시설이 관리주체도 없이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부서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도 적극적으로 고쳐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월드컵 경기장 대부

료 체납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월드컵 경기장 대부분 징수 방안 등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무주에서 개최되는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전주시가 소극적 마케팅으로 경제적 효과를 전주로 끌어들여 한계가 있다”며 “전주를 비롯한 전북지역 태권도협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전주시의 관심을 요청하고 있지만 어떠한 영문인지 전주시는 이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규모 스포츠이벤트에 따라오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전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 스포츠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원광보건대, ‘원광테크노마켓’ 개관

LTM 교육시스템 기반설계 다양한 학교기업 입점

익산 원광보건대의 실습형 학교기업인 ‘원광테크노마켓(WM)’이 1일 개관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여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상 4층, 3700㎡ 규모로 건립된 원광테크노마켓은 원광보건대의 현장 밀착형 LTM 교육시스템(Learning, Training, Marketing)을 기반으로 설계됐으며, 학과와 연계된 다양한 업종의 학교기업들이 입점해 있다. 대학이 전공 학과와 관련된 학교기

업을 설립해 운영하는 사례는 많지만 이처럼 학교기업들이 집약돼 마켓 형태의 종합 센터로 구축된 것은 유례 없는 일이다. 대학 측은 원광테크노마켓(WM)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현장밀착형 실습 교육기회를 제공, 이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인중 총장은 “원광테크노마켓은 단순히 학생들의 편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과 전공을 살린 전공 교육 및 실습, 실 제품 판매까지 모두 이루어지는 취·창업 역량 강화 시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시, 한복 활성화 위해 한복의 날 운영 · 착용문화 확산

다양한 진흥정책 고민

전주시가 한복의 날 운영 등 다양한 한복착용 진흥정책을 통해 한옥마을 관광객 중심의 한복착용문화를 시민들의 생활 속에도 뿌리내리기로 했다.

전주시는 전통문화의 복원과 확산을 위해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한복의 날로 운영하고, 한복을 입고 경기전 등 주요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한복입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연간 1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에서는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는 이러한 한복 입는 문화를 기존 한옥마을 관광객에서 전주시민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한복착용문화 진흥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자발적으로 이뤄진 한옥마을의 한복착용 문화를 확산시켜 한옥마을을 한복의 물결로 가득 채우기 위해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조례’에 따라 경기전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는 한복산업 활성화와 한복입기 문화를 시민들의 삶 속에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해 한복입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주관하는 일



‘카지노 딜러가 되는 방법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6 관광산업 채용박람회서 참가자들이 카지노 체험을 하고 있다. 올해로 3회 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에는 호텔, 여행사, 콘도, 카지노, 유원지 시설 업체 등 총 112개 기업이 참가하며 오는 2일 까지 진행된다.

부 주요행사에서는 간부공무원들과 시민들이 한복을 착용하는 등 생활 속 한복문화 정착에도 주력하고 있다.

시는 최근 전주시 한복문화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한복착용 진흥정책 수립을 위해 복식전문가와 한복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회의체인 한복다올마당도 구성했다.

이에 앞서 한복관련 단체인 한복데이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주시의 지

원을 받아 생활 속 한복 활성화를 위한 전주한복사진 콘서트 ‘한복할래?’도 진행했다.

전주한복사진 콘서트에는 전주를 방문해 한복을 입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연인과 친구, 가족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진콘서트 부문 1340건, 공유이벤트 632건 등 총 1972건의 참여가 이어졌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시

민들이 한복을 만들고 입고 보여주며 모여서 이벤트를 펼치는 등 우리 고유의 복식문화인 한복의 외연확장을 통해 전통문화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문화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라며 “한복착용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대, 개강 맞아 학생들에게 나눔 행사 가져

이남호 총장 · 보직자들 5,000인분 떡 · 음료 나눠주며 소통

“알찬 여름방학을 보낸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개강을 맞아 1일 2학기 첫걸음을 뗀 학생들을 환영하기 위해 떡나눔 행사를 가져 이목을 끌었다. 이남호 이튼 아침 이남호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 보직자들은 전주캠퍼스와 익산 특성화캠퍼스 각 출입문에 나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5,000인분의 떡과 음료를 나눠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오래 방학을 마치고 캠퍼스에 첫 발을 들여놓는 학생들도 떡과 음료를 건네받으며 감사 인사와 웃음으로 화답하는 등 전북대 캠퍼스에는 따스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이 총장은 “방학 동안 더욱 더 열심히 자질을 갖추고 돌아온 우리 학생들과 직접 인사하기 위해 교문 앞에 섰다”며 “전대인 모두 누구보다 열정적인 2학기 대학생활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IMSIL-GUN 임실군

세심 자연휴양림

- 전화 : 063-644-4611, 063-640-2475
- http://smhu.imsil.go.kr

성수산 자연휴양림

- 전화 : 063-642-9456~7
- http://www.sunsusan.co.kr

예약은 필수! 임실에서 힐링하세요 ~